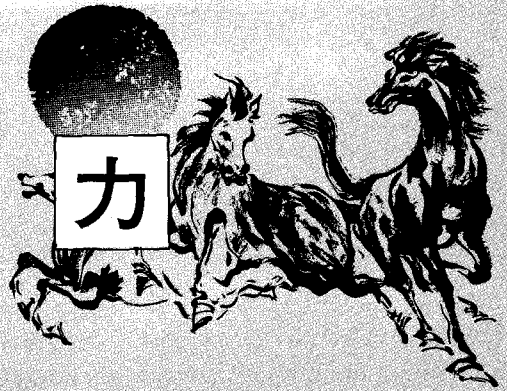


馬



希望에 가득찬 21世紀를 바라보는 1990年, 올해는 庚午年 말의 해이다.

옛사람들은 年月日時를 우리들 주변에서 살고 있는 동물 子(쥐), 丑(소), 寅(범), 卯(토끼), 辰(용), 巳(뱀), 午(말), 未(양), 申(원숭이), 酉(닭), 戌(개), 亥(돼지)를 상징화하여 12支干, 60甲子로 정하고 陰陽 五行(金木水火土)의 變化의 論理를 적용하여 易學을 발전시키고 曆書를 창출 해 냈다.

금년은 이와같은 12支干의 순환구조에 의해 庚午年에 해당하는 말의 해이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送舊迎新과 달리 특히 말의 해를 도약과 약진과 발전의 해로 희망을 갖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것은 말이 갖고 있는 선량한 品性和 용기 있는 象徵性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人類의 歷史는 말과 떼어 놓을 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오늘날의 말은 4,500年前에 살았던 曉馬를 그 조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人類에게 길들여진 말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왔고 人類의 文化史에 큰 몫을 담당해 왔다. 石器時代의 壁畫에서 우리들은 그가 人類의 同伴者였음을 인지할 수 있으며 그 용감하고 우아한 모습은 인류의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古代로부터 연약한 人間의 모험과 탐색이 말과 함께 이루어지고 개척정신과 영웅성이 말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국가 사회발전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飛躍의 發展이나 躍進의 氣概를 내세울 때마다 말을 표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 용기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말이 지니고

있는 천부의 용기와 불굴의 투지를 거울삼아 모든 일의 전진과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말은 '聖獸', 성스러운 짐승이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어느 동물에도 비길 수가 없다.

말은 타고난 총명과 순발력에 의하여 등에서 떨어진 主人을 결코 밟는 일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生物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기에 네발로 달리는 짐승이 많은 가운데 오직 말만이 天馬니, 龍馬니 하는 별칭을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민족은 말을 祥瑞로운 동물로 여기고 꿈의 解夢에 있어서도 말에 관한 꿈은 어떤 내용 이건 大吉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말이 처음으로 들어온 것은 약 2,500年前, 쇠붙이로 된 武器를 사용했던 騎馬鐵器 人들이 말을 타고 중국 북부와 만주의 황량한 벌판을 거쳐 한반도에 다다랐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騎馬民族은 이미 정착하고 있던 원주민과 화합하여 국가를 발전시켰으며 靑銅器文化를 형성하였다.

그후 우리나라 歷史에 있어서 말에 얽힌 說話는 다양하고 화려하기 끝이 없다.

新羅의 始祖인 朴赫居世의 탄생설화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鷄林의 蘿井부근 숲속에서 말울음 소리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 白馬옆에 큰알이 있고 그속에서 아기가 나와 신라의 시조가 되었다. 오늘날도 慶州의 天馬塚을 비롯하여 옛 古墳에서는 어김없이 土製말형, 말그림 등이 흔히 발견되고 있다.



高句麗 神武王 3년에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骨旬川에서 神馬를 얻었다. 그후 扶餘와 싸움이 일어나 적군에 포위되어 神馬를 잃었다. 그러나 3個月후 神馬는 부여의 말 100여필을 끌고 다시 고구려로 돌아 왔다고 한다. 과연 한번 섬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神馬였다.

高麗 太祖는 馬神을 수호하는 天驕星에 제사를 올리기 위해 도성안에 馬祖壇을 설치하였다. 이 馬祖壇은 朝鮮朝 19세기 말까지 동대문 밖에 남아 있었다.

朝鮮朝의 명장 林慶業장군이 金白點의 명으로 형리의 곤장에 의해 죽자 마부가 그가 아끼던 駿馬를 가리키며 「짐승은 무지하니 주인 죽은줄도 모른다」고 힐난했다. 말은 그 말을 알아 들었는지 먹기를 그만두고 한번 큰소리로 울더니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한다.

辛未洋擾때 江華에서 장렬한 전사를 한 魚在淵장군의 말도 그 주인을 따라 피를 토하고 순사했다. 名馬들의 뜨거운 의리가 사람못지 않았음을 뜻하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地名, 山, 江 등에 말과 관련된 이름이 많은 것도 특색의 하나이다.

全國의 地名 가운데 馬字가 들어간 곳이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많으며 市, 邑, 面이 14개소, 洞, 里가 172個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 馬山이라는 市, 面, 里가 30개소, 馬岩 6개, 馬場 5개, 馬井 4개소가 있으며 그밖에 馬耳山, 白馬江, 말죽거리, 말골등 실로 5萬을 헤아린다고 한다.

말과 관련된 地名의 生成語源은 말이 인류의 역

사와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친숙한 동물일 뿐만아니라 우리민족은 말을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地名에는 향토적인 傳説과 地形的으로 말에 대한 형태성, 실제성의 由來를 지니고 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英國을 비롯한 西歐社會에서 말의 힘을 에너지 測定의 工率單位로 써 온 사실이다.

말의 筋力은 소와 비슷하지만 운동속도는 약 2배에 달한다. 말의 민첩성은 야생시절 장거리를 달리던 습성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走力은 時速 18Km로 100~150Km 정도는 단숨에 달리며 단거리에 있어서는 시속 66Km의 놀라운 속도를 낸다. 이와같은 말의 힘을 기준으로 力學的으로 어느物體에 힘을 작용하여 어떤거리로 이동하였을 때 생기는 일의량을 측정하는데 있어 「일률」의 단위로 馬力을 적용한 것이다. 근세에 英國에서 原動機가 발명되어 말이 1초당 75kg·m를 움직이는 일의 양을 1馬力(1HP = HP Horse Power)로 정하고 원동기의 발전량 단위로 삼았다. 1馬力은 746W에 해당하는데 이 單位는 발전기 용량표시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말은 에너지 동력 측정에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푸른 草原을 달리는 駿馬의 경쾌한 모습!  
싸움터를 누비는 赤兎馬의 용맹스러운 기개!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神馬의 총명한 기민성!  
이 모든 것이 庚午年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에 우리 국가 사회발전과 각자의 행동지침으로서 재현되기를 희구하는 것이다.(暢)